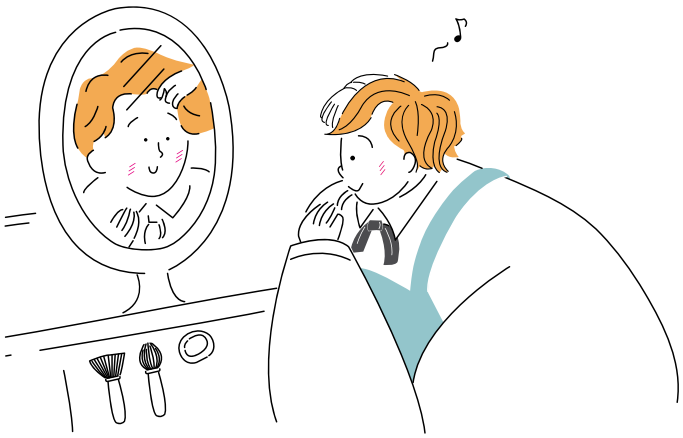
폭력예방교육 토론사례집

토론식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위한
사례 모음집



여성가족부

GENDER EQUALITY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폭력예방교육 토론사례집

수탁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발 정미정(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윤영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송다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감수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정현백

발행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02-2100-6000(代)

일러스트 아빠의 디자인

디자인·인쇄 슬로워크

목차

사례1 인기 유튜버가 되고 싶은 승현이 — 4
대상 | 초등학생

사례2 너처럼 예쁜 케익 하나 골라봐라 — 6
대상 | 대학생, 자영업 종사자, 일반국민

사례3 의료보험이 없다고요? — 8
대상 |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사례4 나는 일을 잘하고 싶어요 — 10
대상 | 노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공무원, 일반국민

사례5 나는 단지 좋아해서 그런거야 — 12
대상 | 노인, 일반국민

사례6 미나씨의 걱정 — 14
대상 | 장애가족, 일반국민

사례7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 16
대상 | 청소년, 대학생, 일반국민

사례8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 18
대상 | 대학생, 일반국민

사례9 불쾌해도 되나요? — 20
대상 | 공공기관, 일반국민

사례10 윤씨 할머니의 마음고생 — 22
대상 | 노인, 도서벽지

부록 더 많은 사례들 — 24

사례 1 인기 유튜버가 되고 싶은 승현이

1 인기유튜버가 되는게
소원인 승현이.
인기 BJ들의 영상을 열심히 구독중이라.

2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점점 방문자가
줄어드는 승현이의 채널

3 욕설을 하고 엄마와 친구들을 욕하는
방송내용으로 바꾸어 진행하니
어느새 유명 BJ가 된 승현이.

4 유명해진 만큼 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자극적이고 거짓으로 포장된 방송내용이 알려지며
승현이는 매우 난감한 입장이 되어버렸다.

대상 | 초등학생

사례

초등학교 6학년 승현이의 장래희망은 인기 유튜버다. 승현이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 인기 BJ들을 따라하고 연습하면서 1주일에 한 번씩 비디오를 업로드한다. 지난주에 올린 비디오가 인기가 없어서 고민 끝에 이번 주에는 비디오에 엄마 욕과 같은 반 여자친구들을 욕하는 내용을 올렸다. 엄마와 여자친구들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인기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한 것이었다.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비디오가 인기를 얻게 되었고, 승현이의 엄마와 같은 반 여자친구들에 대한 욕은 학교 전체로 퍼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승현이는 엄마 욕과 친구 욕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게 되었다.

토론거리

1. 인터넷 공간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욕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인터넷에 내 신상이 떠돌고, 나에 대한 근거 없는 욕이 올라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3. '느금마', '마이애미' 등 어머니를 호칭하는 말들이 왜 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4. 승현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관련기사

시사인 2017.9.4. <여성혐오, 교실을 점령하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93

여성신문 2017.8.28.
<'여성살해 협박' 범칙금 5만원 그 이후 ① '여혐' 콘텐츠 삼는 유튜버 활개>
http://www.womennews.co.kr/news/116726

IZE 2017.8.22. <여성 살해 스트리밍 | ① '여성혐오'라는 수익모델>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7082116307213220

허핑턴포스트 2017.7.7. <유튜버·BJ들의 영향력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겪는 고충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07/story_n_17418096.html?utm_id=naver

사례 2 너처럼 예쁜 케익 하나 골라봐라

대상 | 대학생, 자영업 종사자, 일반국민

사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다영씨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다영씨가 일하는 빵집은 유흥가가 밀집한 곳에 있는데, 저녁 시간만 되면 술에 취한 직장인들이 와서 무례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몇 살이니, 어디 살아? 왜 이런데서 일해~ 공부해야지”, “아저씨가 일자리 소개시켜줄까?”, “여기서 제일 예쁜 애 나와 봐! 네 얼굴처럼 예쁜 케익 하나 골라봐라” 등 다영씨를 상품처럼 취급하며 성희롱을 하는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 괴로워 그만둘까 생각도 해 보았지만, 월세와 학비 등을 생각하니 일을 쉽게 그만둘 수가 없다.

*위 사례는 본 기사를 재구성하였음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950

토론거리

1. 손님들의 성희롱에 다영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2. 다영씨가 일하는 가게의 주인은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할까요?
3. 이와 비슷한 사례를 듣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4. 다영씨가 만약 남성 직원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봅시다.
5. 왜 룸살롱과 같은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유흥가의 가게에서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6. 성 상품화와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과의 관계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참고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3 의료보험이 없다고요?

1

2

3

4

대상 |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사례

결혼이주여성 응우옌씨는 임신 8개월 차다. 검사를 위해 홀로 산부인과에 간 응우옌씨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응우옌씨는 한국에 의료보험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데다가, 그마저도 지난 부부싸움 이후 남편이 피부양자에서 삭제해버린 것이었다. 응우옌씨는 다누리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사례는 아래 관련기사를 재구성하였음

토론거리

1. 배우자를 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삭제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4. 모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다누리 콜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다누리 콜센터(1577-1366)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홈페이지 주소 : www.liveinkorea.kr

관련기사

서울경제 2017.10.9. <의료보험 혜택 못 받는 결혼이주여성 임산부들>
http://www.sedaily.com/NewsView/1OM8JHY2Z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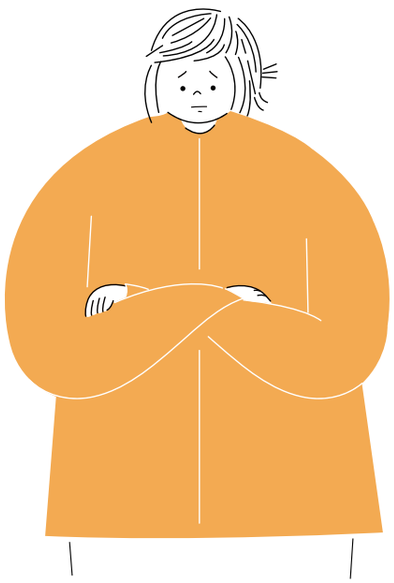
사례 4 나는 일을 잘하고 싶어요

1

2

3

4



대상 | 노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공무원, 일반국민

사례

요양보호사인 미영씨는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일 하는 게 즐거우나 어느 한 어르신이 집요하게 손을 잡는다든지 어깨를 두드리며 스킨십을 하고, 밥을 먹고 가라거나 자고가라는 말을 할 때는 너무나도 불편하다. 그러나 미영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꺼내기가 두렵다.

토론거리

1. 미영씨가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고, 자고 가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만약 내가 사례의 어르신이라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 같은가요?
4. 미영씨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련기사

조선일보 2017.10.17. <방문 요양·복지사들 “방문 열기 무서워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7/2017101700233.html

사례 5 나는 단지 좋아해서 그런거야

1

2

대상 | 노인, 일반국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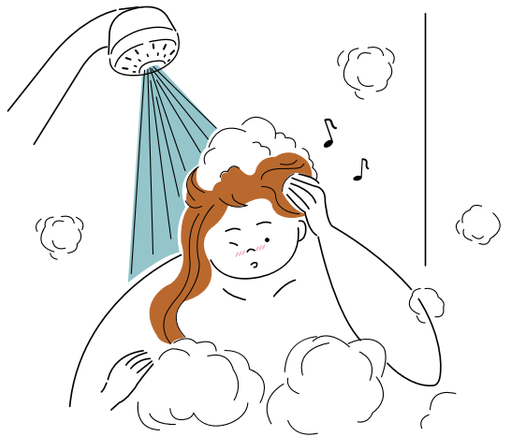
옆 동네 김씨 할아버지와 파란 대문집에 사는 박씨 할머니는 평소에 음식도 나눠먹고 동네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묻는 사이이다. 어느 날, 박씨 할머니를 좋아하던 김씨 할아버지는 박씨 할머니에게 사귀자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 할머니는 김씨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씨 할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아 답답했던 김씨 할아버지는 박씨 할머니에게 대답을 듣기 위해 무작정 박씨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 “대답하라”며 박씨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박씨 할머니는 곤란한 표정이다.

토론거리

1. 박씨 할머니는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박씨 할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봅시다.
2. 할머니의 대답을 듣기 위해 집 앞으로 찾아가는 행동,
   손목을 잡아끄는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만약 내가 김씨 할아버지가 박씨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끄는 것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사례 6 미나씨의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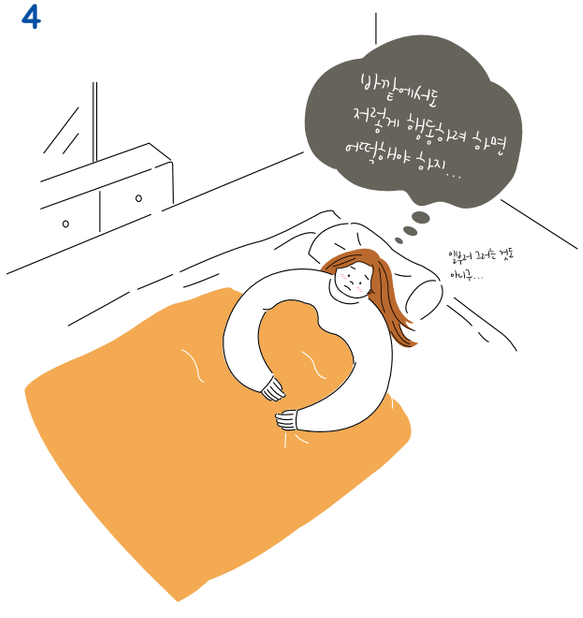
1



2

3

4



대상 | 장애가족, 일반국민

사례

직장인 미나씨는 부모님, 그리고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미나씨의 동생은 종종 노크를 안 하고 화장실 문을 여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 미나씨가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고 샤워를 하던 도중 동생이 문을 여는 바람에 당황한 경험이 있었다. 본인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익숙하고 이해도 되지만, 동생이 밖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 된다.

토론거리

1. 나라면 미나씨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각자 이야기해봅시다.
2. 집이 아닌 밖에서는 동생의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3. 미나씨의 걱정과 관련하여,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지 혹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사례 7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1

2

대상 | 청소년, 대학생, 일반국민

사례

대학생 민기는 주말마다 대형할인점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뷰티에 관심이 많은 민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고객들의 피부타입을 진단해주고 화장품을 추천해주기도 하여 친절한 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고객이 민기씨에게 “무슨 남자가 화장품을 팔아? XX 떨어지겠네”라고 말하며 지나갔다. 민기씨는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졌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가만히 서있었다.

토론거리

1. 지나가던 남성 고객이 민기씨에게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봅시다.
2. 여성이나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일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토론해봅시다.
3. 성별에 따라 적합한 일이 있다는 생각은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토론해봅시다.(성희롱, 성별분업 등 앞선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활용해보세요.)

관련기사

여성신문 2017.10.19. <성차별적 경찰 여성 채용 비율 제한 폐지된다>
http://www.womennews.co.kr/news/117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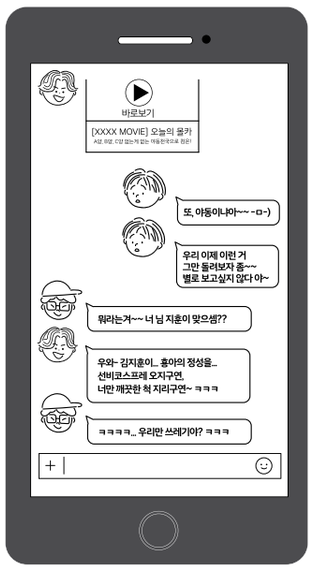
오마이뉴스 2017.10.25. <‘2등정규직’, 10년 일해도 승진하려면 신입부터 다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1042

사례 8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1

2

3



4

대상 | 대학생, 일반국민

사례

대학 새내기인 지훈이는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학교의 행사나 수업 과제 등을 공유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단톡방에 있던 친구 한명이 “내가 좋은거 가져왔어!”라며 몰래카메라 영상을 올렸다. 지훈이는 바로 몰카영상에 대해 불편함을 이야기하며 보지말자고 했지만 친구들은 “너 혼자 깨끗한 척 하지마! 우리끼리인데 어때?”라며 지훈이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토론거리

1. 지훈이처럼 단톡방에서 원치 않는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본적이 있는지 혹은 올린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3.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톡방 멤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련기사

경향신문 2017.10.29.
<[창간기획-혐오를 넘어](4) 혐오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혐오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92250005&code=210100#csidxa89684c97b0c223960143db156a501a

관련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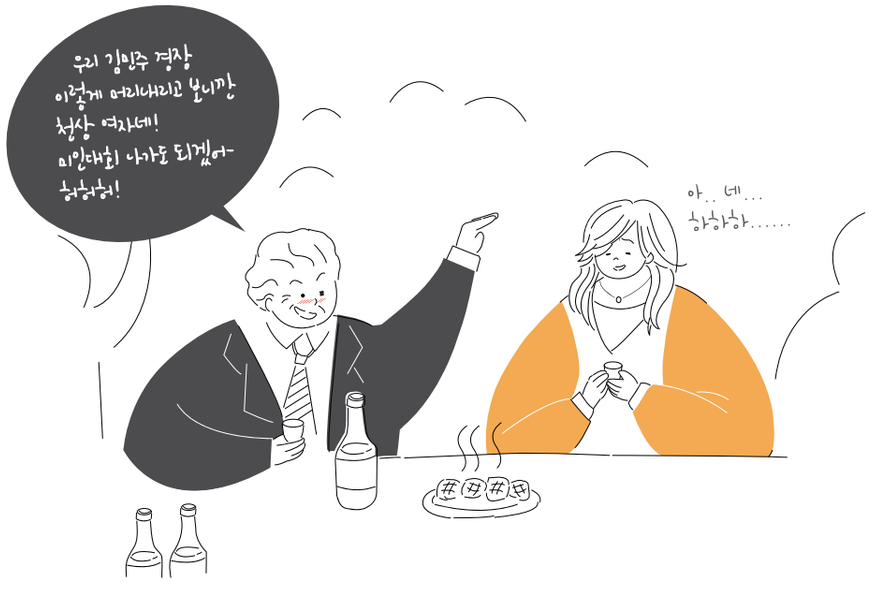
1. 세바시 강연 “당신은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겠습니까?”
   2016,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CBS
2. EBS 평등채널e “은밀한 공범들”
   2017,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EBS
3. 닷페이스 “나는 한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간다”
   2017,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닷페이스

사례 9 불쾌해도 되나요?

1

2

3



대상 | 공공기관, 일반국민

사례

OO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주 경장은 활기차게 국민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장규정대로 평소 올림머리를 하고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팀장님이 저녁 회식을 제안하였다. 민주씨는 계획되어 있던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회식에 참석하였다. 1차로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먹고, 2차로 팀원 전체가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돌아온 민주씨에게 갑자기 팀장님이 이렇게 말했다. “김민주 경장! 머리 내리니까 여자네~ 예쁜데? 역시 여직원이 있으니까 좋구만!” 팀장님이 이상한 말투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는 외모 언급으로 민주씨는 약간의 불쾌함과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씨는 불편한 기분을 내색할 수 없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토론거리

1. 민주씨가 어떠한 맥락에서 불쾌함을 느꼈을지 동료들과 토론해봅시다.
2. 여성 직원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사례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3. 업무 공간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대우를 받거나 특정한 역할을 맡기는 등 성차별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4. 내가 만약 민주씨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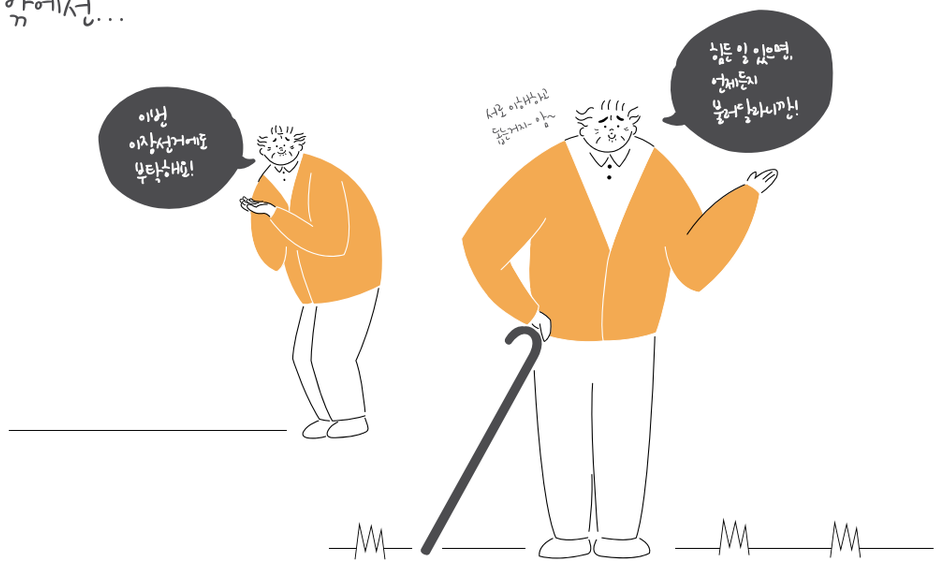
관련기사

중앙일보 2017.10.17.
<“여경 아닌 경찰관입니다” … 여성 경찰관, 셋 중 1명 차별 경험>
http://news.joins.com/article/22018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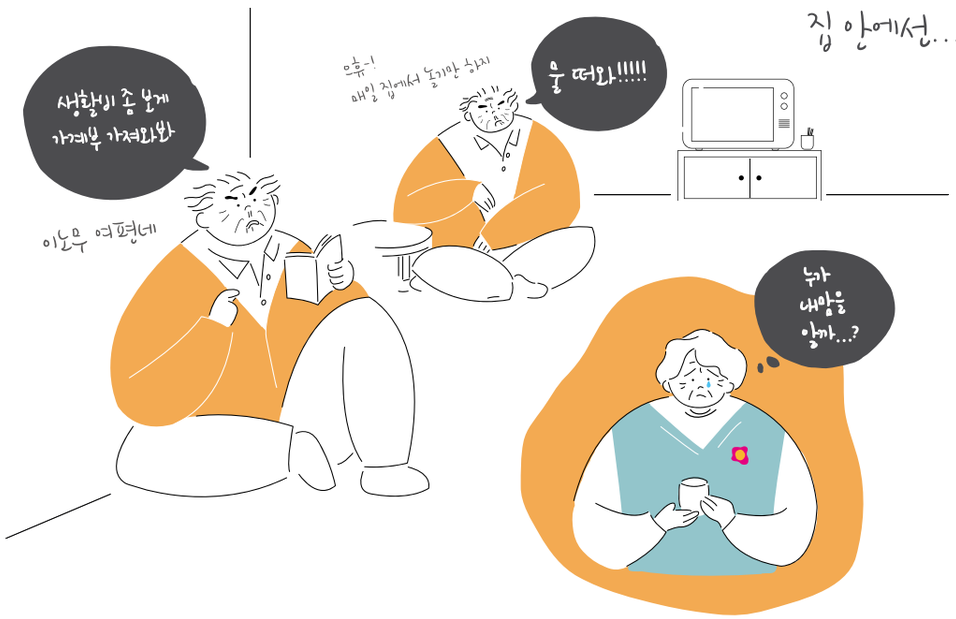
중앙일보 2017.10.16. <[기획]여경 맹활약하는데…욕설·폭행·성차별 시달린다>
http://news.joins.com/article/22016600

사례 10 윤씨 할머니의 마음고생

1 집 밖에선...



2



대상 | 노인, 도서벽지

사례

윤씨 할머니는 20세에 △△섬에 사는 노씨 할아버지 집으로 시집 와 50년 째 살고 있다. 마을 사람들 일이라면 마다 않고 도와주는 노씨 할아버지는 마을 이장을 여러 번 맡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 그러나 노씨 할아버지는 집에만 오면 태도가 달라진다. 집에서는 물 한 잔 스스로 떠먹지 않고 윤씨 할머니를 하인 부리듯 한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돈도 잘 꿔주면서 할머니에게는 생활비를 줄 때마다 가계부를 검사하고는 한다. 50년 간 마음고생을 한 할머니는 상담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아 혼자 고민하고 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론거리

1. 할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할머니가 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3. 신체적 폭력 외에 어떤 것들이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4. 할머니의 고민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록. 더 많은 사례들

사례 1 성희롱

대상 | 공공기관, 일반국민

입사 3년 차인 희원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지난 3년 간 같은 팀의 부장이 직원들에게 기습적으로 볼이나 손등에 뽀뽀를 해왔던 것이다. 얼마 전 회식 날에도 술집 앞 골목에서 부장은 뽀뽀를 했다. 희원씨가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또한 본인이 없었던 다른 회식 자리에서는 부장이 남성 직원들 앞에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걔가 처녀인 것 같냐, 처녀가 아닌 것 같냐?”고 물어보는 등 음담패설도 많이 한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2 인권상담사례집>

사례 2 성희롱, 성차별

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혜은씨는 공부에 매진한 결과, 꿈에 그리던 OO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입학해보니 과 동기 13명 중 여자는 본인이 유일했다. 그런데 박사과정에 있는 어느 선배가 “여자니까 커피를 타야 한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다”, “수영복은 비키니를 입어라”, “가슴은 무슨 컵이냐” 등 성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아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과 선배, 후배 간에 군대처럼 서열이 있어서 밉보일까봐 걱정하다가 교수님께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 선배는 동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냐, 이 xx년아”라고 욕을 하며 혜은씨를 몰아붙였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2 인권상담사례집>

사례 3 성희롱, 성폭력

대상 | 직장인, 일반국민

대기업 신입사원 지혜씨는 연수 시절 도움을 주었던 교육 담당자 김계장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김계장이 술을 더 먹으러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지혜씨는 약간 망설였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계장이 “내가 너한테 뭐 하겠냐? 이야기나 하자”고 했기 때문에 ‘별 일 없겠지’하는 마음으로 모텔에 가게 되었다. 방에 들어서자 김계장은 돌변하여 스킨십과 성폭행을 시도하였다. 이후 지혜씨는 고소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김계장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을 해왔다. 회사의 도움을 얻고자 피해 사실을 인사팀장에게 털어놨으나 인사팀장 역시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결국 지혜씨는 ‘풍기문란’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여성신문 2017.11.5. < ‘△△ 사내 성폭행’ 사건,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강간문화’ 드러내다>

사례 4 성희롱, 성폭력

대상 | 학생, 교사

현주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현주는 어느 날 복장불량을 이유로 교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한 남자 선생님이 현주의 가슴 위를 꼬집으며 훈계했다. 또 현주가 배가 갑작스레 너무 아파서 담임 선생님의 동의 없이 양호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을 혼내면서 자꾸 현주의 배를 만졌다. 아무래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여러 아이들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2 인권상담사례집>

사례 5 성희롱, 성차별

대상 | 청소년, 직장인, 자영업자

재연이는 수능시험을 마치고 사회 경험을 쌓고자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사장이 재연이를 부르더니 이력서 사진과 다르게 너무 못생겼다고 매장에 있지 말고 주방으로 가라고 말했다. 재연이는 큰 상처를 받아 사장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사장은 경찰을 불렀다. 다행히도 경찰이 사장에게 재연이에게 사과를 하도록 권고하여 당장은 무마되었지만 사장은 여전히 사과할 생각이 없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2 인권상담사례집>

사례 6 성희롱, 성폭력

대상 |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지희씨는 엊그제 면접을 보러 갔다. 조그만 회사라 면접대상은 4명이었고 1대 1 면접이었다. 면접이 시작되자 사장은 지희씨에게 업무 관련 질문은 하지 않고, ‘두 번 결혼할 상’이라고 하며 “엉덩이가 예쁘게 생겨서 좋다”고 말하는 성희롱을 했다. 사장은 지희씨의 손을 만지고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대기도 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4 인권상담사례집>

부록. 더 많은 사례들

사례 7 성희롱, 성폭력

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대학 졸업반인 지우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교수와의 면담을 했다. 하지만 면담을 끝내고 나오려는 찰나 교수가 지우를 안더니 자신의 얼굴을 지우 얼굴에 비볐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교수를 피하고 있는데, 지우는 동기들로부터 교수가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교수 연구실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4 인권상담사례집>

사례 8 성희롱

대상 | 직장인, 자영업자

혜정씨는 공장에서 남자 직원 30여 명과 근무를 하고 있는 유일한 여자 직원이다. 어제는 안전교육을 진행하다가 상관이 쉬는 시간에 직원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영상은 화장실에서 남자들이 서로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혜정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기분이 나빴지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5 인권상담사례집>

사례 9 성폭력, 불법촬영

대상 | 일반국민, 의료 종사자

은형씨는 아랫배가 아파 산부인과에 내진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의사가 진찰 중에 옆의 레지던트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고 레지던트는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은형씨의 외음부를 촬영했다. 동의를 받지도 않은 터라 진찰이 끝나고 물어보니 교육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은형씨는 이에 항의하고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의사는 무시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5 인권상담사례집>

사례 10 성희롱

대상 | 일반국민, 자영업자

유나는 미용실에서 한 달 정도 근무를 했다. 문제는 미용실 원장이 근무시간에 컴퓨터에 앉아서 음란채팅을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고객을 등록 하다 보면 창이 떠서 음란채팅 내용을 볼 수밖에 없다. 유나와 다른 미용사들은 이런 행태가 불쾌해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쉬쉬했다. 결국 다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퇴직하겠다고 하니 원장은 당당한 태도로 집단행동을 해서 영업방해를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고 나섰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5 인권상담사례집>

사례 11 성희롱, 성폭력

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법조인

20대 후반의 여성인 인영씨는 지도교수의 친형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도교수의 친형이 집 앞까지 바래다 준다는 말에 그의 차에 탔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돌변해 인영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좁은 차 안이라 피해자의 협력 없이 강간이 가능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먼저 팔짱을 끼고 키스를 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더라도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등의 이유를 대며 강간이 아니라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영씨는 처음에 지도교수의 친형이란 점 때문에 망설이느라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신고한 후에는 지도교수와 불화를 겪다가 자퇴까지 하게 됐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판례뒤집기>

사례 12 성매매, 그루밍*

대상 | 청소년, 교사, 일반국민

고등학생인 희경은 친구 아람이를 통해 ‘O톡’이라는 채팅앱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희경이는 부모님과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왔고, 늦은 시간 친구에게 연락할 수가 없어서 채팅앱을 켰다. 채팅앱에 로그인해 들어가자마자 “오빠가 피방비 내줄게 지금 나올래?”, “서울? 지금 데리러 갈게”, “밥은 먹었어? 맛있는거 사줄게. 교복도 챙겨오구”, “오빠 집 방 두 개라 따로 자면 되는데, 우리 집 올래?” 등 희경이가 느끼기에 다정한 쪽지들이 수십 개 쏟아졌다. 희경이는 그 중 제일 착해 보이는 사람 한 명과 연락해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성착취 행위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적환경이 취약한 대상자를 상대로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통제와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것.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여성신문 2016.9.15. <채팅앱 덫에 걸린 소녀들>

부록. 더 많은 사례들

사례 13 성폭력, 성매매

대상 | 청소년, 일반국민

은지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고, 또래의 '일진' 문화 속에서 자랐다. 술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성매매 알선으로 돈을 벌었다. 어느 날 은지씨는 또래 집단의 남자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 후 모텔에서 재차 술을 마셨다.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가 친구였던 현건이 이불 속에서 몇 번의 성관계를 시도했고, 은지가 이에 저항해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하지만 남성의 성욕 해소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지였기에, 이와 같은 행위는 당시로서는 눈감아줄만한 일이었다. 때문에 이후에 현건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놀이공원에 갔다. 하지만 이후 놀이기구를 타러 간 곳에서 현건은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은지씨의 가슴에 손을 넣었다. 은지씨는 앞서의 행위들보다 이것에 더욱 분노했고, 현건을 고소하게 되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판례뒤집기>

사례 14 데이트폭력, 성폭력

대상 | 대학생, 일반국민

20살인 예림이는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서 '헤어지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늦은 밤까지 함께 있었다. 하지만 예림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자친구는 예림이를 외진 곳으로 데려갔다. 이후 키스를 했고 예림이가 이에 불쾌해 하며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남자친구가 "여자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은 위험하다"며 함께 따라 탔다. 그리고 집근처에서 내려 함께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상가 쪽 계단에서 남자친구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키스를 시도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판례뒤집기>

사례 15 성폭력, 그루밍

대상 | 청소년, 일반국민

15세였던 경미는 경미한 외상으로 인해 입원한 병원에서 42세인 감독 김철수를 만나게 되었다. 김철수는 연예인을 만나게 해주고, 배우를 시켜주겠다면서 경미에게 접근하여 병원의 입원실과 피고인의 차량,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여러 차례 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 경미의 퇴원 이후에도 거의 매일 추행과 강간이 지속되었다. 이후 김철수는 경미가 임신하였음을 알게 되자 경미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판례뒤집기>

사례 16 성폭력

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법조인

대학원생이던 슬기는 연구실에 여러 날 밤새워 과제를 했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지도교수의 친구가 집요하게 함께 식사하기를 요구하였다. 더 이상 거부하기도 힘이 들어, 지도교수의 친구의 차에 탄 순간 그는 슬기를 강간하였다. 유부남인 그는 성추행 전력까지도 있었다. 슬기는 학업을 중단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여러 번 손목을 그었다.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슬기는 장장 5시간의 증인신문을 받았고 "왜 동맥 대신 정맥을 그었느냐"는 질문까지 받았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시사인 2017.8.16. <성폭력 피해자가 받은 질문 "왜 동맥 대신 정맥 그었냐">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7

사례 17 성폭력, 성매매

대상 | 청소년, 일반국민

김주상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면 12만원을 준다"며 중학생인 은하를 인근 노상으로 불러냈다. 이후 은하를 승용차에 태운 뒤 가기로 약속했던 숙박시설이 아닌 인적 없는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겁을 먹은 은하가 "돈을 돌려줄테니 돌아가자"고 했지만 김주상은 은하를 수차례 때린 뒤 강간하려고 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아시아경제 2016.9.2. <'조건만남' 청소년 강간하려던 전 대학교수…성매수는 '무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0210493234315

사례 18 성매매, 아동학대

대상 | 청소년, 일반국민

군 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온 한구씨는 OO시에 위치한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 당시 여자친구는 실종 신고된 가출 청소년 주희양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한구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주희양을 이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희양이 한구씨의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차 수리비를 조건만남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주희양이 이를 승낙하자 한구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구해줬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연합뉴스 2017.9.15. <"차 수리비 조건만남으로 해결해라"…가출청소년에 성매매 강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063100062.HTML?input=1195m

부록. 더 많은 사례들

사례 19 성매매

대상 | 이주여성, 일반국민, 경찰

종업원 은수씨는 OO동의 슈퍼마켓에서 근무한다. 어느 날 젊은 남성과 동행한 태국인 여성이 남성의 눈을 피해 서툰 한국말로 쓴 쪽지를 은수씨에게 건넸다. “태국(인)이 건물에 있다. 알려주세요. 나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었던 은수씨는 이날 오전 퇴근길에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 쪽지를 전했다. 덕분에 경찰은 업소를 덮쳐 성매매 영업 중인 것을 알아냈다. 동행했던 젊은 남성은 건물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태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보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한국일보 2017.7.4. <“태국(인)이 건물에 있다” 성매매 일당에 감금됐다 쪽지로 살아난 외국여성>
http://www.hankookilbo.com/v/df57dd90e8a54563acb9fc5e9deb639a

사례 20 성매매, 그루밍

대상 | 청소년, 일반국민

가출 청소년 민정이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40대 남성인 박진수를 만났다. 박진수는 “지낼 곳과 핸드폰을 구해주겠다.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고, 민정이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진수와 그의 친구들은 성구매 남성을 구해 민정이를 만나게 했다. 그들은 민정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다. 민정은 이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민정이는 수사기관에 “아픈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성매매를 했다. 바다에 놀러가고 싶다고 했지만 박진수 등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뉴시스 2017.10.19.
<가출 여중생 성매매시켜 생활비 충당한 20대 일당 ‘실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9_0000109778&cID=10803&pID=10800

사례 21 성매매, 성폭력

대상 | 장애인, 공공기관, 일반국민

문맹이자 지적 장애인인 용희씨는 OO동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OO업소 주인 밑에서 성판매를 하고 있다. 업소 주인은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용희씨의 지적 능력을 빌미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주인은 용희씨의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설해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아 신용 불량으로 만들기도 했다.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OO동 업주와 종사자들은 수년 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외부로 알려질 경우 당국의 단속이 잦아질까 쉬쉬하고 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뉴시스 2016.12.28. <원주 집창촌서 지적장애인에 ‘성매매 강요 폭행’>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06_0010332764&cID=10805&pID=10800

사례 22 성매매

대상 | 일반국민

졸업 예정인 OO사관생도 희철이와 친구들은 졸업을 기념해 성구매를 하기로 했다. 정기외박을 나가 OO동 오피스텔에서 성구매를 하였으나, 이후 국방망 인트라넷의 무기명 게시판에 이 같은 사실이 제보되었다. 희철이를 포함한 3명은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고 사관학교 교육위원회에서는 퇴교를 심의하기로 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스타뉴스 2017.2.24. <육사생도 3명, 성매매 형사입건.. 퇴교조치 예정>
http://star.mt.co.kr/stview.php?no=2017022400013697555&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사례 23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대상 | 공공기관, 일반국민, 경찰

30대인 지원씨는 합법적 경로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OO동에서 홀로 왁싱샵을 운영한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왁싱과 함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변종 왁싱숍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남성 고객들이 전화로 “사장이 나이가 몇 살이냐”, “OO원을 내면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등의 문의를 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뉴스1 2015.10.22. <남성 전용 왁싱숍?…오피스텔서 변종 성매매> http://news1.kr/articles/?2464786

사례 24 성매매

대상 | 학부모, 일반국민, 공공기관

주현씨의 자녀가 다니는 OO초등학교의 정문은 하교 시간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다. 정문 바로 앞이 유흥가와 맞닿아 있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한 것이다. 교문 앞에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있지만, 불과 5m 떨어진 골목에는 유흥업소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주현씨는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가장하여 영업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난감하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JTBC 2017.12.4. <유흥업소 빼곡히…낯뜨거운 어린이 통학로>

부록. 더 많은 사례들

사례 25 성매매, 성폭력, 불법촬영

대상 | 일반국민, 경찰

성구매를 하기로 한 양민호씨는 한 여성과 OO호텔 객실에서 만나기로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뒀다가 나중에 보기 위해 라이터 모형의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준비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눈치 채 양민호씨를 신고하였고, 결국 양민호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양민호씨는 미안한 기색 없이 "나중에 보려고 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조선닷컴 2017.10.12. <성매매 여성과 관계하는 장면 몰래 찍다 걸린 40대 남성의 변명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2/2017101202228.html

사례 26 가정폭력

대상 | 일반국민

은주씨는 명절 준비관계로 시댁 식구와 갈등이 있어 남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 남편은 폭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고, 은주씨는 두려움 때문에 집을 나가 찜질방에서 하루 자고 귀가했다. 다음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은주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은주씨는 결국 경찰에 긴급 출동을 요청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가정폭력 현장대응 사례집 더 이상 NO>

사례 27 가정폭력

대상 | 일반국민

영진이의 아버지는 알콜중독자로 평소 어머니가 가정의 돈을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하였다. 어느 날 영진이는 밤늦게 집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칼로 찌르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말리려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영진은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가정폭력 현장대응 사례집 더 이상 NO>

사례 28 가정폭력

대상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일반국민

토모카씨는 국제 결혼 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은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16년 동안 참고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물속에 얼굴을 넣어 움직일 수 없게 하거나, 전화를 부수는 등의 행동으로 화풀이를 하였다. 참다못한 토모카씨는 지인 집에서 별거생활을 해본 적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키우는 것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적 부담감으로 결국 집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몇 달 후 남편이 다시 심하게 구타하였고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토모카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가정폭력 현장대응 사례집 더 이상 NO>

사례 29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도서벽지, 일반국민

베트남 여성 우엔씨는, 결혼 후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몸이 약한 우엔씨는 임신 및 출산 과정 내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지만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우엔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학대를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너무 자주 맞다보니 매일 두려움과 공포심에 밤을 지새웠으나 조그만 섬이라서 이웃이 별로 없고 하루에 육지로 가는 배가 3번밖에 없으며, 지구대에 가더라도 경찰관이 참고 살라며 그냥 갈 뿐 처벌해주지 않았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가정폭력 현장대응 사례집 더 이상 NO>

사례 30 가정폭력

대상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일반국민

중국 여성 금영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함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시어머니는 금영씨가 진짜 초혼인지 의심하였다. 이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 더욱 결혼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다. 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나빠지면서 장기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가정폭력 현장대응 사례집 더 이상 NO>

부록. 더 많은 사례들

사례 31 가정폭력

대상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일반국민

베트남 여성 린씨는 국제 결혼 후 임신 중인데 최근 남편이 린씨가 다른 남자를 다닌다고 의심하여 폭언과 신체적 가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린씨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경찰 신고를 통해 남편이 조사 받았으나 린씨가 가정 유지를 바라서 남편을 선처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후 다시 린씨를 때렸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가정폭력 현장대응 사례집 더 이상 NO>

사례 32 가정폭력, 스토킹

대상 | 일반국민

시각장애인인 우연씨는 남편과 4년 간 동거하다가 1개월 전에 헤어졌다. 남편은 동거 기간 동안 우연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 때문에 접근금지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우연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가정폭력 현장대응 사례집 더 이상 NO>

사례 33 가정폭력

대상 | 노인, 일반국민

60대인 김씨 할머니는 동년배인 남편과 함께 살았다. 37년 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김씨 할머니는 남편으로부터의 일상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렸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견뎠다. 어느 날 계모임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남편은 김씨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이에 김씨 할머니의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했다. 결국, 김씨 할머니는 장식품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다.

출처: 위 사례는 다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연합뉴스 2017.10.20. <37년간 가정폭력 시달린 아내, 장식용 돌로 내리쳐 남편 살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0/0200000000AKR20171020056800062.HTML?input=1195m

참고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사례집> (2010-2015)
2.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판례뒤집기>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 현장대응 사례집「더 이상 NO」

폭력예방교육 토론사례집

토론식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위한
사례 모음집

여성가족부

GENDER EQUALITY